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51 서울특별시 중로구 을곡로 64 Tel 02. 765. 3011~3

06

2017 | Vol. 545

해질녘의 교토 (夕暮れの京都)
Photo : Lee Sanghyun

한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아베 내각총리대신 코멘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일본국 정부 및 일본 국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한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앞으로 문재인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일해 나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일한 관계는, 오랫동안 일한 양국의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해 우호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차기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폭넓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로 발전시켜 가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일한 양국은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차기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문재인 차기 대통령을 만나 뵙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9일

한국 대통령선거에 대한 기시다 외무대신 코멘트

이번에 문재인 후보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차기 대통령의 지도 아래, 대한민국이 더욱 큰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일본에게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차기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할 새 내각과 긴밀히 협력해 가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9일

* 이 코멘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일한정상 전화회담

5월 11일 14시 35분경부터 약 30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총리대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한국은 일본에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일한 관계는 오랫동안 양국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거듭하며, 우호관계를 통해 맺은 결과다, 이러한 바탕 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구축해 가고자 한다는 말했다.

또, 아베 총리가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만나 뵙고 싶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발언하여, 조기에 정상회담을 실현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매우 긴요한 과제인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아베 총리로부터 일한 합의를 포함해서 양자간 관계를 적절히 관리해 가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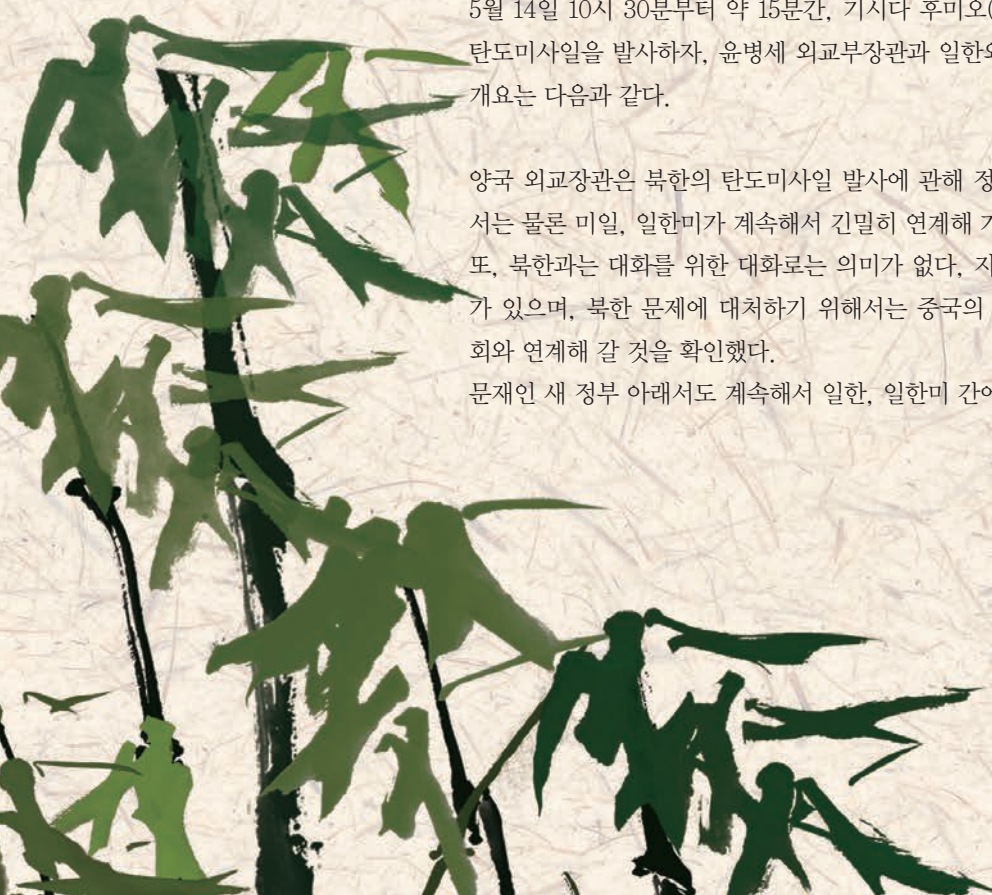
일한외교장관 전화회담

5월 14일 10시 30분부터 약 15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한외교장관 전화회담을 가졌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양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유엔에서는 물론 미일, 일한미가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했다.

또, 북한과는 대화를 위한 대화로는 의미가 없다, 지금은 북한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와 연계해 갈 것을 확인했다.

문재인 새 정부 아래서도 계속해서 일한, 일한미 간에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했다.



2017년도 춘계 외국인 서훈

지난 4월 29일(토), 일본 내각부는 '2017년도 춘계 외국인 서훈'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손경식(孫京植)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현 CJ그룹 대표이사, 회장

- 공로 개요 : 한일 간 경제분야에서의 관계 강화에 기여
- 훈장 :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

2. 정의화(鄭義和)

전 국회의원, 전 한일의원연맹 고문, 전 한일의원연맹, 조선통신사특별위원회위원장

- 공로 개요 : 한일 간 의원교류 및 상호이해의 촉진에 기여
- 훈장 : 욱일대수장(旭日大綬章)

3. 김태환(金泰煥)

전 한일의원연맹 수석부간사 겸 운영위원장, 전 한일의원연맹 회장대행, 현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부회장

- 공로 개요 : 한일 간 의원교류 및 상호이해의 촉진에 기여
- 훈장 : 욱일중수장(旭日中綬章)

4. 김승택(金升澤)

한라윈드 앙상블 음악감독

- 공적 개요 : 일한간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 촉진 및 대일 이해 촉진에 기여
- 훈장 : 욱일쌍광장(旭日雙光章)

5. 지연호(池蓮昊)

전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직원

- 공적 개요 : 일본국 재외공관 활동에 기여
- 훈장 : 서보단광장(瑞寶單光章)





후쿠이 역 앞

영상 통화로 이루어지는 시민 교류 후쿠이 시와 수원시

후쿠이 시 소개

후쿠이 시(福井市)는 구주류(九頭竜)·아스와(足羽)·히노(日野) 3대 하천의 선상지(扇狀地)인 후쿠이 평야에 위치한 인구 약 27만 명의 후쿠이 현 현청 소재지다. 1889년 시승격 이래 공습이나 지진, 수해 등 수많은 재난을 당했지만 ‘불사조 도시’로서 불굴의 정신으로 되살아 났다. 역사적 유산의 하나인 이치조다니 아사쿠라가문 유적(一乗谷朝倉氏遺跡)은, 센고쿠 다이묘(戰國大名, 센고쿠 시대 각지에서 할거했던 대영주) 아사쿠라 씨가 5대 103년에 걸쳐 에치젠(越前, 현재의 후쿠이 현 동부)의 중심으로 변영한 ‘북쪽의 소교토(小京都, 교토의 정취를 가진 도시)’로 일컬어지던 성하 마을이자, 우아한 문화의 꽃을 피

운 곳이다. 센고쿠 시대(戰國時代, 1493년~ 1573년경) 성하 마을의 유구가 당시 상태 그대로 발굴·저장되어 있어, 국가특별사적, 특별명승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일본에서도 불과 6개 밖에 없는 국가의 삼중지정(三重指定)이 되었다. 또 요코칸 정원(養浩館庭園)은 후쿠이 번주였던 마쓰다이라가의 별장(福井藩主松平家の別邸)으로 국가지정명승이다. 이곳은 뛰어난 물의 조형, 정원과 저택이 훌륭한 일체감을 이루고 있다. 후쿠이 성 아래, 다섯 겹으로 둘러친 해자의 외호 옆에 있으며, 풍부한 맑은 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우아하고 그윽한 물의 정원이다. 다실 풍의 건물 저택을 갖춘 회유식임천정원(回遊式林泉庭園, 나무·흐르는 물·연못이 있는 정원 양식)이다.



아사쿠라가문 유적



요코칸 정원

에도시대 초기부터 중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정원의 하나로써 미국의 정원전문지가 발표한 ‘일본 정원 랭킹’에서 매년 상위로 선정되고 있다.

후쿠이의 음식하면, 에치젠가니(越前ガニ, 에치젠 게)와 오로시소바(おろしそば, 무즙을 얹어 먹는 메밀국수), 소스가쓰동(ソースカツ丼)이 유명하지만, 그 외에 후쿠이에

서 탄생한 ‘고시히카리(コシヒカリ)’와 긴푸쿠수이카(金福すいか, 노란색 수박), 전통 채소인 고치 아카카부라(河内赤かぶら, 붉은 순무)와 신보나스(新保ナス, 가지)를 비롯해, 신선하고 맛있는 산해진미가 가득하다. 또, 수준 높은 의무 교육과 육아 환경을 자랑하며, 일본의 모든 시를 대상으로 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언제나 상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조부모의 동거·근거리 거주 비율이 높고, 조부모에 의한 육아 지원을 받기 쉬운 것이 특징이며, 후쿠이 시의 총특수출산율은 2015년 1.62로, 일본 전국 평균 1.46을 상회하고 있다.

내년에는 후쿠이 행복건강국체(福井しあわせ元気国体)·후쿠이 행복건강대회(福井しあわせ元気大会)가 개최된다. 그 예비 대회가 6월부터 개최되며, 일본 전역에서 선수·감독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후쿠이 시를 방문한다. 또 2023년 3월까지의 호쿠리쿠 신칸센(北陸新幹線)의 후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후쿠이 시 방문객 여러분을 ‘쓰루쓰루 잇빠이노 오모테나시(つるつるいっぱいのおもてなし)’로 맞이하고자 한다.

※후쿠이 사투리로 ‘쓰루쓰루 잇빠이’란 더 이상 술이나 물을 따르면 넘칠 듯 하지만, 표면 장력으로 액체가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전하여 더할 나위 없는 최대의 환대.

우호 도시 ‘수원’과의 교류

후쿠이 시와 수원시의 인연은 청년회의소 간 교류에서 시작되었으며, 1964년 후쿠이 청년회의소와 수원 청년회의소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소년야구단에 의한 스포츠 교류, 초·중학교 의한 학교 교류 등 반세기 가까운 교류를 바탕으로, 2001년 12월 22일 우호 도시가 되었다. 주니어 대사 교류, 학생작품전 교류, 시민단과 행정단 상호 방문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



에치젠 가니



에치젠 오로시소바



소스가쓰동



고시히카리



후쿠이 시가

스카이프를 이용한 시민 교류

다양한 교류 중에서도 매달 정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후쿠이 시민국제교류협회 사업의 하나인 스카이프 교류다. 후쿠이 시와 수원시 시민이 월 1회(주로 제2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스카이프를 이용해 교류하고 있다. 화상 전화처럼 상대 얼굴을 보면서 한국인은 일본어로, 일본인은 한국어로, 그 달의 테마에 따른 화제나 상대국에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참석자 전원이 각각 발표

하고 있다. 수원 시민이 한국의 계절 행사나 자신의 취미를, 후쿠이 시민이 한국과 관계 있는 불교 미술을 소개하거나 발표한 후에, 서로에게 질문하고 즐기면서 문화의 차이를 발견하며 이해를 돈독히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교류가 깊어지면서, 친분이 생긴 분을 개인적으로 찾아가거나, SNS로 메시지나 사진을 교환하고, 이름을 부르는 절친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후쿠이 시 회원 7명이 수원화성문화제에 맞춰 방문하여 교류를 더욱 돈독히 했다. 이러한 민간 교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차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문의]

후쿠이 시 상공노동부 관광문화국 오모테나시 관광추진과 국제실

Tel +81-776-20-5300

HP <http://www.city.fukui.lg.jp/index.html>

교통 비행기로 인천에서 고마쓰까지 약 2시간, 고마쓰 공항에서 후쿠이 역까지 직행버스로 약 1시간. 오사카에서 특급열차로 약 1시간 50분, 교토에서 특급열차로 약 1시간 30분.



스카이프 교류

(집필: 후쿠이 시, 협력: CLAIR, Seoul)

일본사정

다도우라센케 서울출장소 이춘실 주재 강사 인터뷰

합리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이 다도의 매력

‘우라센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도우라센케는 센노리큐(千利休)를 시조로, 4대째부터 ‘우라센케(裏千家)’, ‘오모테센케(表千家)’, ‘무사노코지센케(武者小路千家)’ 3개의 센케로 나뉘어졌습니다. 15대 호운사이(鵬雲斎) 센겐시쓰 대중장(玄室大宗匠)님은 당주를 장남에게 물려준 후에도 ‘한 잔의 차로부터 피스플니스’의 이념 아래,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며, 또한 장남인 16대 자보사이(坐忘斎) 센소시쓰 당주님도 일본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지원 덕분에 1988년 5월에 활동을 시작한 우라센케 서울출장소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00명 이상의 분들이 서울출장소에서 우라센케 다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라센케는 37개국, 111곳에 출장소와 협회가 있으며, 전 세계에서 일본전통문화의 발신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라센케의 가문(家紋)은 계속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팽이’ 문양을 쓰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도’와 인연을 맺으셨나요?

일본 차와의 만남은 1987년 교토를 방문했을 때, 처음으

「裏千家」について簡単な紹介をお願いします。

茶裏千家は、千利休を始祖とし、4代目から「裏千家」、「表千家」、「武者小路千家」の3千家に分かれました。15代の鵬雲斎千玄室大宗匠は、家元を御長男に譲られた後も、「一盃からピースフルネスを」の理念の下に世界中で活発に活動されており、また、御長男である16代の坐忘斎千宗室家元も、国内外で活躍されています。そのお二方の御支援により1988年5月に活動を始めた裏千家ソウル出張所は、お陰様で今年30周年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まで、400人以上の方々がこのソウル出張所で裏千家茶道を修道しております。

裏千家は37か国、111か所に出張所や協会があり、世界中で日本伝統文化の発信に取り組んでいます。裏千家の家紋は、動き続けているように見える「独楽」の紋を使用していますが、「止まらず、一生懸命に活動している」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と伺いました。

いつ「茶道」との縁が生まれましたか。

日本茶との出会いは、1987年に京都を訪問した際初めて抹茶を飲んだことです。その1年後に、偶然、抹茶が描かれた茶道裏千家の行事のポスターを拝見し、京都で飲んだ抹茶を思い出し参加したいと思いました。当時は会社勤めをしていました



로 말차를 마신 것입니다. 1년 후, 우연히 말차가 그려진 다도우라센케의 행사 포스터를 보고, 교토에서 마신 말차를 떠올리며 참가하고 싶어졌습니다. 당시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참가하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행사가 예정된 공보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다도 시연을 체험하고, 해설을 들은 저는 다도에 매료되어, 바로 다도우라센케에 입문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입문 후에는 거의 쉬지 않고, 열심히 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990년 교토에서 개최된 '센노리큐 거사 400주기' 추모법요대회에 참가했을 때, 교토에서 유학할 것을 권유 받아, 다니던 회사를 1년간 휴직하고 교토에서 우라센케 다도를 배우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다도는 움직임이 합리적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은 지, 언제나 생각하면서 움직이므로, 자연히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자세를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5대 당주인 호운사이 센겐시쓰 대종장은 자주 한국을 방



가,どうしても参加したかったので, 昼休みの時間に行事が予定されていた公報文化院を訪れました。そこで茶道の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を体験し, 解説を聞いた私は茶道に魅了され, すぐに茶道裏千家に入門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入門後は, ほぼ休むことなく, 一生懸命稽古に通いました。そして, 1990年に京都で開催された「千利休居士四百年遠忌」の追善法要茶会に参加した際, 京都に留学することを勧められ, 勤めていた会社を1年間休職して京都で裏千家茶道を学び, 今に至っています。

茶道の魅力は何でしょうか。

茶道は動きが合理的です。お客様をお迎えするにあたって, どのような心構えをもって臨めば良いのか, 常に考え動くことによって, 自然と合理的で美しい身のこなし方を身につ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

第15代家元である鵬雲斎千玄室大宗匠は頻繁に韓国を訪問されるなど, 日韓間の文化交流に深く関わ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が, これまでどのような交流が行われてきましたか。

千玄室大宗匠が参加された行事の中で一番印象深かったのは, 1996年5月に行われた「日中韓国際茶文化大会」という行





문하는 등, 양국간 문화 교류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나요?

센겐시쓰 대종장이 참여한 행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996년 5월에 이루어진 ‘한중일 국제차문화대회’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어시스턴트였지만, 3국의 다도 선생님이 여러 장소에서 각각의 다도를 선보이는 매우 대규모의 국제 이벤트였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다른 언어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고,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 ‘한일우정의 해’ 기념으로 이루어진 ‘한일우정의 해 시민 차 모임’에서는 500여 명의 일반시민이 참가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작년에도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문화와 평화를 테마로 ‘동아시아 차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도를 테마로 한 다양한 교류행사를 통해 일한 양국의 교류발전에 공헌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도우라센케 서울출장소 30주년 기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9일 동안(5월 25일~6월 2일) 공보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事です。当時、私はまだアシスタントでしたが、日中韓三国の茶道の先生達が、様々な場所でそれぞれの茶道を披露する非常に大規模な国際イベントでした。本行事を開催するにあたっては、異なる言語で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行うことの難しさも感じましたが、互いに協力し努力しながら成功裏に開催することができ、相互理解を深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また、2005年の日韓友情年を記念して行われた「日韓友情年市民茶会」には、500人余りの一般市民が参加して下さいました。その他、昨年も釜山で東アジアの文化と平和をテーマに東アジア茶文化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等、茶道をテーマにした様々な交流行事を通じて日韓両国の交流発展に貢献されてきたと思います。

茶道裏千家ソウル出張所30周年記念として行われる今回の行事について簡単に紹介してください。

9日間(5月25日~6月2日)公報文化院で行われた今回の行事では、裏千家茶道に関する説明や茶道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茶道具や写真などの展示を行いました。特に茶道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では、抹茶と社中が用意した手作りの菓子でお客様をおもてなし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今回の行事では、社中達が日頃のお稽古の成果をお客様に披露し、茶道裏千家の魅力を伝える機会を持つこと

행사에서는, 우라센케 다도에 관한 설명과 다도 시연, 다 도구와 사진 등을 전시했습니다. 특히, 다도 시연에서는 말차와 회원들이 만든 과자를 손님 여러분께 대접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평소 연습한 성과를 손님께 선보이고, 다도우라센케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 동안 서울출장소의 활동을 후원해주신 호운사이 센겐시쓰 대종장님과 자보사이 센소시쓰 당주님께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또 이 기회에 다도우라센케 담교회 서울협회의 간사장이 오랫동안 모아온 다도 관련 자료와 사진 등을 정리해서 기록집도 만들었습니다. 30주년을 계기로, 예전 회원과 현재 회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것입니다.

서울출장소에서는 다도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나요.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현대사회에서, 우라센케 다도를 통해 서로 존경하고,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호운사이 센겐시쓰 대종장님과 자보사이 센소시쓰 당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센노리큐가 걸어온 길을 저희도 걸어가기 위해, 솔선해서 행동하려는 마음 가짐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되어 입문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다도를 ‘가르친다’기 보다, 우라센케 다도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서로 공부한다’는 생각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도 수업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가 막 입문했을 때는 일본인과 한국인 회원이 반반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인 회원의 비율이 약 80%를 차지합니다. 또, 미국과 중국 등 각국 분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활동 계획은?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울출장소가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지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협력하면서 활동해 가고 싶습니다.



で、これまでソウル出張所の活動を支えてこられた鵬雲斎千玄室大宗匠様や坐忘斎千宗室家元様に対し感謝の気持ちを伝えたいという強い思いがありました。また、この機会に、茶道裏千家淡交会ソウル協会の幹事長が長い間集めてきた茶道関連資料や写真などをまとめて記録集も作りました。30周年を機に、昔の社中と現在の社中との出会いの場を作りたいとの思いを込めて作ったものです。

ソウル出張所では茶道教室も運営されていますが、どのような部分に重点を置いてお稽古を行っていますか。

人間性が失われつつあると言われる現代社会において、裏千家茶道を通じて互いを尊敬し、常に感謝の気持ちを失わないよう、鵬雲斎千玄室大宗匠や坐忘斎千宗室家元の教えを伝え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ます。千利休が歩まれてきた道を私たちも歩んでいくため、率先して行動する気持ちを持って稽古しております。また、ある程度、歳を取られてから入門される方も多いため、私が茶道を「教える」というより、裏千家茶道の心を正しく理解していただくことに重点を置きつつ、「互いに勉強し合う」との思いで、稽古を行っています。現在、稽古はほぼ毎日行っており、私が入門したばかりの頃は、日本人の社中と韓国人の社中が半々でしたが、今は韓国人の社中の割合が約8割を占めます。また、米国や中国など各国の方々も参加されています。

今後の目標や活動計画は。

これから、これまでと同様に活動し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ソウル出張所が30周年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のは、皆様の支えがあったおかげです。今後とも皆様と協力しながら活動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플랑플랑

‘천천히 느리게’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삼성동 디저트카페 플랑플랑(PLANPLAN). 나카무라 아카데미 ‘제과 전문코스’ 상급 졸업자인 문선영 파티시에와 김은숙 파티시에가 운영하는 곳으로 두 사람의 따뜻하고 밝은 케미가 디저트를 먹는 이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분 좋은 느낌으로 가득했다.



케이크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한 계기는?

문선영 잡지사에서 근무할 때, 푸드 스타일링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 파티 스타일링에 대해 알아보다 케이크에 관심이 갖게 되었어요. 케이크를 우울해 지거나, 불행해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케이크는 만들 때도 즐겁지만 누군가에게 선물했을 때,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모두 행복해지는 음식’이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지만,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 은숙 씨를 만나면서 생업이 되었죠(웃음).

김은숙 평소부터 케이크에 관심이 많았고, 먹는 것을 좋아했어요. 일본 여행을 가서 디저트 시장이 크고 종류도 많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일본 케이크에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일본 케이크 만드는 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랑스 케이크와 일본, 한국의 케이크의 차이점은?

문선영 프랑스 케이크는 어느 한가지 맛에 임팩트가 있는

반면, 일본 케이크는 튀지 않고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일본 케이크를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터라,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 케이크가 아닌 일본 케이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딸기쇼트케이크 같은 생크림케이크를 일본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김은숙 케이크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는 케이크가 코스요리 끝에 나오는 후식 개념이라 맛이 강하고 느끼한 케이크가 많아요. 일본 케이크는 차와 함께 곁들여 먹는 과자 같은 개념이라 프랑스 맛을 살리면서도 일본 고유의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한 측면이 추가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케이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케이크는 일본의 섬세한 케이크 보다 단순하지만, 프랑스 케이크만큼 임팩트를 강조하지 않는 산뜻한 맛의 케이크를 선호합니다.

어떤 계기로 두 분이 함께 가게를 운영하게 되셨나요.

문선영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무라 아카데미에 들어갔는데, 은숙 씨가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급반까지 졸업하고 싶어지더군요. 나가무라 아카데미 4기, 5기를 함께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꼭 같이 가게를 내자고 일 년 내내 말했습니다(웃음).

김은숙 선영 씨 이야기를 들으며, 가게를 여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서로 방향성도 맞고, 생각도 비슷해서 함께 가게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김은숙 둘 다 가게 운영이 처음이라 실수도 많았고 여러 모로 어려웠습니다. 사실 서로가 추구하는 것은 같은데,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흡수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이 저희 케이크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문선영 혼자 일 하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다른 일은 아무것도 수용하려 하지 않게 되지만, 둘이 소통하며 일하다 보면 이런 위험에 빠질 염려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크를 만들거나, 가게를 운영하며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문선영 가장 첫 번째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케이크는 입으로 즐기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케이크지만 그 안에 모든 기술과 예술을 담아, 좋은 재료로 정성껏 손님께 행복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김은숙 케이크를 사치품으로 여기는 분들을 사로잡기 위해, 눈이 즐거우면서도 먹을 때 부담감 없는 맛있는 케이크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면에서도 케이크가 잘 보이도록 심플하면서 따뜻한 느낌의 나무 소재를 많이 쓰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가 있다면.

문선영 케이크 하면 플랑플랑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오랫동안 사랑 받는 가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건물 한 채를 통째로 사용해서 손님들이 케이크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제과 전문 서적, 제빵 용품 등 제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과 박물관’ 만들고 싶은 것이 꿈입니다.



세계관광시설물유산 도키와 호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도키와 공원

초록과 꽃 그리고 조각의 도시, 우베 시

우베 시(宇部市)는 일본 혼슈(本州) 서쪽 끝에 위치한 야마구치 현(山口県)의 녹음이 우거진 공업 도시다. 인구는 약 17만 명, 면적은 287 제곱킬로미터로, 온화한 기후, 산해진미가 풍부한 매우 살기 좋은 도시다.

세계에서 가장 재가 내리는 도시

우베 시는 석탄산업의 진흥으로 발전했으며, 이후 전쟁으로 시가지 대부분이 소실되었지만, 도시 재건을 위한 시민의 열망과 전후의 부흥경기가 맞물려 순조롭게 복구되었다.

그 뒤, 급격한 공업화의 대가로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그을음과 매연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재가 내리는 도시'로 불리게 되었다.

우베 방식의 공해 대책

이 공해 문제에 대해, 민간산학 연계로 '우베 방식'이라 불리는 공해 대책을 세웠으며, 환경 개선을 도모한 실적은 산업 발전과 시민 복지의 조화를 목표로 한 선진적 사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997년 환경 보호·개선의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글로벌 500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시민이 하나를 이룬 자치 정신의 고양과 마을 만들기 등에 대한 열정은, 이후 도시화와 꽃 심기 운동, 공원 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역사 있는 조각전 'UBE 비엔날레'

도시 녹지 운동의 일환으로 1961년 개최된 '우베 시 야외 조각전'은 '현대 조각전', 'UBE 비엔날레'로 명칭을 바꾸며,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 있는 야외 조각 경연대회가 되었다. 해외에서도 많이 응모하는 국제적인 야외 조각전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해외 작가의 대상



제23회 UBE 비엔날레(2009년) 대상작 'Self-consciousness'
한국인 작가 Yom Sang UK 씨 작품(도키와 공원)



55년째 동일 위치에 서있는 우베 시 조각의 상징 '개미의 성' 1962년 작품(도키와 공원)

수상도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의 작품 응모를 늘려갈 계획이므로, 한국에서도 많은 응모를 바란다.

UBE 비엔날레 <https://www.facebook.com/ubebiennale/>

매력 넘치는 도키와 공원과 거리를 수놓은 조각

'UBE 비엔날레'의 장소는 세계관광시설물유산에 등재된 '도키와 호(常盤湖)'를 중심으로 189헥타르에 걸쳐 펼쳐지는 '도키와 공원'이다. 우베 시의 상징이라 할만한 이 공원은, 지금까지 '일본 도시 공원 100선', '일본 벚꽃 명소 100

선', '아름다운 일본의 걷고 싶은 길 500선', '21세기에 남기고 싶은 일본 풍경', '이케노보 하나소요(池坊花道遥) 100선', '신일본 도보 기행 문화의 길 100선'에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공원에는 'UBE 비엔날레' 입상 작품을 포함해서 100점 가까운 야외 조각이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많은 작품을 즐길 수 있다.

또 공원 내에는 서식 환경 전시가 특징인 우리와 울타리 없는 동물원 '도키와 동물원'이 작년에 오픈 했으며, 올 4월에는 열대 아시아 존, 유럽 존 등 세계 8개 존으로 구성



거리의 조각 '떨매의 한 형태' 1981년 작품(JR 우베신카와 역 앞) 도쿄 스카이트리를 감수한 스미카와 키이치(澄川喜一) 씨 작품



UBE 비엔날레 행사장(도키와 공원)

된 ‘세계를 여행하는 식물관’이 문을 열어 꽃, 식물, 조각, 동물, 유원지 등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종합 공원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연간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도키와 공원 <https://www.tokiwapark.jp//>

그리고 ‘UBE 비엔날레’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조각은 시내 곳곳으로 옮겨져 설치되며, 현재 야외에 설치된 약 180점의 조각이 우베 거리를 수놓고 있다.

이렇게 우베 시는 ‘세계에서 가장 재가 내리는 도시’에서 ‘초록과 꽃, 조각의 거리’로 거듭났다.

웰컴! 우베 시로

공해 극복부터 야외조각전 ‘UBE 비엔날레’까지 우베 시의 도시 만들기 드라마를 소개했다. 우베 시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부관 페리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로 후쿠오카 공항 혹은 기타큐슈 공항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다. 또,

우베 시에는 아마구치 우베공항이 있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국제정기항공편이 인천국제공항간 주 3편 취항했으며, 이 기간 중 약 15,000명의 왕래가 있었다. 현재, 여름시즌은 운항을 중지하지만 올 겨울시즌부터 다시 취항할 예정이다. 이 항공편을 이용하면 우베 시까지의 소요 시간은 불과 90분으로 매우 편리하다. 작년 12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마구치 현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기 위해 전용기를 이용해 이곳에 내리기도 했다. 올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제27회 UBE 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방문 바란다.

[문의]

우베 시 국제정책과 Ube City Office International Policy Division

Tel +81-836-34-8135 **Fax** +81-836-22-6083

e-mail kokusai@city.ube.yamaguchi.jp

HP <http://www.city.ube.yamaguchi.jp/>

(집필: 우베 시, 협력: CLAIR, Seoul)



J-MUSIC NOTES 쿠랏도네스 kradness



쿠랏도네스는 니코니코 동화에서 활동하는 남성 우타이테다. 일본은 물론 해외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하이톤 보이스를 무기로 EDM · POP · ROCK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이다.

2015년 12월 데뷔 이래 숨겨 왔던 비주얼을 공개, 2016년 2월 새로운 활동으로 직접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또한, 패션브랜드 'REMER'를 설립하여 프로듀서, 모델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나아가, DJ겸 작곡가로 활약하는 'Camellia'와 유닛 'Quarks (쿠오쿠스)'를 결성해 독특한 플레이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네 번째 앨범 'MIND HACK'을 발매했다.



Official HP <http://kradness.jp>

Twitter <https://twitter.com/kradness55>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P_kradness

kradness-616370255170719/

kradness Youtube Ch <https://www.youtube.com/user/kradness55>



일본 서적 소개 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김난주 옮김 | 재인 출간

'가가 형사 시리즈'의 아홉 번째 작품.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스스로도 시리즈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는 이 작품은 가족애를 그린 감동적인 휴먼스토토리로 일본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영화로 만들어져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전작인 《신참자》와 마찬가지로 활동 무대는 니혼바시 일대이며, 서정적이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풍경은 흥미진진한 두뇌 게임에 읽는 재미를 더한다. 광범위한 탐문수사 결과, 피해자가 니혼바시 일대의 신사를 순례해 왔으며, 천 개의 종이학을 접어 누군가에게 속죄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작품 중반까지도 좀처럼 전모를 드러내지 않던 사건의 마지막 반전이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5월 일본소설 베스트셀러

(제공 : 교보문고)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나미야 점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	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3	가면신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4	너의 해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5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대원씨아이
6	기억술사, t: 기억을 지우는 사람	오라카미 교야	아르테(arte)
7	이 멋진 세계에 축복을!	아카츠키 나츠메	다엔씨미디어
8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민음사
9	흔해빠진 직업으로 세계최강	시라코메 료	다엔씨미디어
10	상당한 저승사자를 기르는 법	차넌 미키토	북플라자
11	편의점 인간	무라타 사이카	살림
12	고블린 슬레이어	카규 쿠모	다엔씨미디어
13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더클래식
14	상실의 시대(원제 :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15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16	너의 해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17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민음사
18	천공의 별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19	무코다 이발소	우쿠다 히데오	북로드
20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나가츠키 텃페이	영상출판미디어

일본국제교류기금 순회전

분투하는 도시들 : 1960년대 일본의 도시 프로젝트로부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주최하는 <분투하는 도시들 : 1960년대 일본의 도시 프로젝트로부터>가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고민거리로 떠오르는 도시 팽창과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약 반세기 전인 1960년대 일본의 젊은 건축가 및 도시설계 전문가가 구상한 제안들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기 위한 전시다.

전시 구성은 '섹션 1 이상도시의 역사' '섹션 2 일본의 원대한 도시프로젝트' '섹션 3 세계의 도시, 1960년대~1970년대' '섹션 4 우리시대 도시의 복합모순'으로 이루어진다. 1960년대 일본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도시를 위한 실험적인 제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 현재의 도교가 보여주는 특이성에 대해 건축과 도시모형, 애니메이션, 사진 슬라이드,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한다.

일시 6월 13일(화)~30일(금) 10:00~17:30(토,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일본국제교류기금,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0, 123)



제6회 전국 고등학생 일본어 스피치대회



제6회 전국 고등학생 일본어 스피치대회 본선이 6월 24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본선 참가자는 각 지역(영남지역, 제주도 지역 제외) 예선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우승자에게는 세계 각국의 일본어 스피치대회에서 선발된 대표들이 실력을 겨루는 '제22회 해외 고등학생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7월 29일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서 개최)'의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상위 입상자에게는 일본 외무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JENESYS 2017(일본 방문 프로그램)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관람무료.

일시 6월 24일(토) 14:00~18: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한국일본어교육연구회,
NPO법인E.G.G(에듀케이션 가디언십 그룹)

후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시사일본어학원, ANA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8)

체험으로 즐기는 2017 여름일본문화소개전 일본의 완구와 놀이문화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7월 24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여름일본문화소개전을 개최한다.

에도시대(1603년~1868년) 무렵부터 전래된 대나무 등의 목재를 이용한 일본의 전통적인 놀

이도구부터 멘코(딱지), 비다마(구슬) 등 근·현대의 놀이도구와 현대의 캐릭터 완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다양한 완구를 알아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본의 완구와 놀이문화 체험전'이 열리며, 매년 큰 인기를 얻고 있



는 '긴교스쿠이(금붕어건지기)' '요요쓰리(요요물풍선 낚기)' 같은 여름축제놀이도 함께 진행된다.

전시 외에 '다이드게(大道芸)' 공연 제3탄과 일본전통음악 공연, 고토(箏) 워크숍, 초등학생 일본문화체험교실도 예정되어 있다.



일시 7월 24일(월)~8월 5일(토) 10:00~17:30(일요일 휴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120, 123)

* 자세한 행사내용은 7월호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제15회 일본가요대회

일본가요대회가 올해로 15회를 맞이한다. 이 행사는 일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만 40세 미만의 한국인이 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본선 입상자에게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비롯해서 푸짐한 부상이 주어진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도전해 보기 바란다. 시상내역 및 JENESYS 2017(일본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 참고.

일시 7월 29일(토) 16:30~18: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반법인 음악산업·문화진흥재단(PROMIC)

후원 ㈜DREAM BOY, DK KOREA, ANA, YAMAHA MUSIC KOREA, Nikon, SOLARIA NISHITETSU HOTEL, Serafina NewYork, Grace International



3일간에 걸친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15팀을 결정하며, 많은 응모자가 참가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1절만으로 심사한다. 반주는 예선, 본선 모두 가라오케를 사용하며, 본선에서는 모니터를 볼 수 없다. 단, 본선 진출자는 전곡을 부르게 된다. 본선은 일반공개로 이루어지며 일본 아티스트의 스페셜 축하 공연도 진행된다.

응모기간 6월 12일(월)~7월 10일(월)

예선대회 7월 14일(금) 14:00~, 7월 15일(토)~16일(일) 10:30~

응모방법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mic@so.mofa.go.jp) 접수

본선 진출자 발표 7월 20일(목)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자세한 사항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문의 02-765-3011(내선 110,125) jmic@so.mofa.go.jp

제20회 일본체험콘테스트 in 대한민국 참가자 모집

일본체험콘테스트는 20주년 기념으로 일본에서 학술 및 연구활동을 계획하는 학생 대상의 '연구체험 부문'과 일본 기업에서 취업체험을 희망하는 학생 대상의 '직업체험 부문'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 일반재단법인 교리쓰국제교류장학재단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후원 등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입상자 10명에게는 본인이 기획한 대로 일본을 체험하고, 기획을 실행하는 비용이 상금으로 주어지며, 체험 후 체험일지를 제출하게 된다.

모집 마감 6월 16일(금) 당일 도착 분까지

응모 자격 대학생, 대학원생(만 33세 이하)

최종 입상자 연구체험 부문 5명, 직업체험 부문 5명(총 10명)

체험실시기간 7월 15일~2018년 3월 초(2주~4주 이내)

문의 일반재단법인 교리쓰국제교류장학재단 서울사무소 02-757-2343

(krt_seoul@naver.com 일본체험콘테스트 담당자)



제5회 고교생 일본퀴즈대회 참가자 모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퀴즈로 풀어보는 제5회 일본퀴즈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대회는 7월 15일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되며, 단체인 및 개인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다양한 부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시상 내역과 응모 내용 등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usan.kr.emb-japan.go.jp/itptop_ko/index.html

일시 7월 15일(토) 14:00~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체육관

응모 마감 7월 5일(수)까지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사)부산한일교류센터

문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 051-410-6124~6





가까고도 먼 이웃나라라고 불리는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두둥지들 각종일을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시마바라 시의 모리타케 상점가(森岳商店街). 성하 마을 중심에 우뚝 서있는 시마바라성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시마바라 반도에는 상점가가 형성되었고 상점들은 지금까지도 지켜져 오고 있다.

그 중에도 1842년 지어진, 시마바라 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마치노요리사키 모리타케(町の寄りさき森岳)'를 소개한다.

170년이 넘은 이 건물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곳은 가게의 간판 스타인 고양이 '가쓰오군'으로도 유명하지요.

걸어서 산책하니 시마바라 시의 많은 것들이 보이네~

계세요?

어서와요~ 이곳은 국가지정된 등록 유형문화재랍니다.

우와~

나가하마(長濱) 할아버지

야옹~ 꾸벅꾸벅~

운기없는 털, 어딘가 모르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가쓰오군이 평범한 고양이가 아닌 이유~

할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1991년 시마바라 반도 후겐타케(普賢岳) 화산분화 재해로 모두가 피난길에 정신 없었을 때

우르르릉

이 난리속에 어미를 잃었구나 이런... 가여워라~

현직 건축 설계사이신 나가하마 할아버지가 주위다 키운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로 지난 5월 5일로 무려 26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한다.

26

고마워요~ 인간들... 와아~

사람으로 치면 한... 110살 정도는 되었지요~

공축! 가쓰오군 귀 빠진 날~*

가쓰오군 이야기는 나가사키 방송 뿐 아니라 전국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해져 이젠 마을의 명물이 되었답니다.

우~ 나뵈 인기스타!!

하지만 노환으로 인한 백내장으로 이젠 눈이 안보여 움직일 때마다 여기저기 머리를 부딪혀 그거 안쓰럽지요~

앞으로 2~3년이면 최장수 고양이로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대네요~

하지만 이 녀석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우후후~

앗! 어르신 그런 섭한 말씀들...

말끝을 흐리시며 할아버지는 가쓰오군 아니 가쓰오웅을 지긋이 내려 보셨다.

그르릉 그르릉

참고로 이 건물의 2층에는 넓직한 이벤트 공간이 있는데 연주회를 비롯하여 마을사람들의 소박한 모임장소 등으로도 개방되고 있다고 한다.

갈갈갈갈

하하하

웬지 닮은듯한 할아버지와 가쓰오웅의 따뜻한 뒷모습.

그르릉~

로닥 로닥

이미 26번째 마을의 구성원이 된 가쓰오웅. 모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길~*